

어른들에게 몇 마디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이 책은 사실 매우 신기한 책입니다.

이 책의 운명은 매우 놀랍습니다. 20여 년 전, 순전히 어린 딸에게 경제이야기를 하기 위해 책을 출간하기로 생각했고, 좀 더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 경제나라 지도를 그려 보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3백만 부 이상 팔려나갔고, 수백 군데의 학교에서 채택되어 새로운 교과서로서 많은 학교에 활발히 소개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이 중·고등학생을 위한 참고서로 사용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요즘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이 나에게 다가와 『열일곱 살의 판타지 경제학』은 자신들이 접해 본 최초의 경제학 관련 도서였으며,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을 경제학으로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출간 후 약 10여 년간 많은 학생들의 관심으로 인터넷 포럼이나 도서 관련 사이트 등에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지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이 책을 다시 발행하기를 바라는 수많은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신세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경제나라에서의 신기한 모험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판본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적 내용들이 당시의 아이들은 경험한 것이지만 요즘의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많아서 단순한 재인쇄에 그치지 않고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책 『열일곱 살의 판타지 경제학』은 구소련 체제에서는 살아 본 경험이 없고 컴퓨터 게임과 휴대전화에 익숙해져 있으며, 어떻게 상점에 식료품이 떨어질 수 있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새로 개정된 책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경제 세상 밖에서는 살 수 없으며, 이 폭발적인 세상에서 자신이 가는 길을 잘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법칙을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일찍 접하는지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진 세계 경제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경제학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책을 당신의 아이들과 같이 읽기를 권합니다. 읽는 중에 아이에게는 많은 질문이 생기게 되고 아이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책은 당신 아이의 세계관의 지평을 넓혀 줄 것이며 많은 과목들, 특히 역사, 사회 등을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당신의 아이에게 사회생활의 다양한 현상에 적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 국립대학 교수, 경제학 박사
이고르 리프시츠(Igor Lipsits)